

성경의 가장 단순한 한 구절과 이에 대한 바른 해석이 미미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는 자율(自律)에 묶인 어떤 훌륭한 인간적 이념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주께서는 그의 교회를 위대한 재림의 아침을 향하여 인도하신다. 위대한 날이 올때 까지 그가 우리를 영원한 영광 중에 취하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연구하며 이를 따라 우리의 교회생활을 계속 개혁해가는 것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유일한 의무이다. 개혁교회는 말씀의 체도를 따라 언제나 계속 개혁해 나가는 교회이다(Ecclesia reformata ecclesia semper reformanda).

집사직의 범위와 중요성

하 도 례

(고신대 교수·도서관장)

I. 서 론

1. 집사의 역할과 봉사의 범위

II. 집사의 직분과 역할의 중요성

참고도서

I. 서 론

“집사(diakonos)”의 어원은 불확실하다. A. T. Robertson은 “dia”와 “Konis”의 합성어로 보는데 즉—“먼지를 통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급히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이란 뜻이다. 집사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한국 교회의 모든 장점과 활기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집사들이 (어떤 교회에는 20여명이 넘는) 대부분이 거의 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에 필자는 크게 실망하고 있다. 그들에게 집사란 흔히 하나의 명예적 직분일 뿐이고 장르가 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에 불과하고 있다. 봉사에 대한 바로 그런 개념이 우리의 일상 언어에서 동양에서 보다 서양에서 더 크게 보여지고 있다. table service(식사 시중), service stations(주유소), self-service(자급) servicemen(육, 해, 공군), religions service(종교 예배) 등으로 그러나 이런말들은 우리 마음속에 그들이 남기는 참된 봉사의 의미에 있어서는 약

한 것이다. 일반성도에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나, 집사직에 대해서나 봉사에 대한 참된 개념의 회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봉사의 범위는 기독교인의 생활 범위만큼 광범위한 것이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 그 자체가 성경을 통하여 여러 종류의 봉사르켜 나타내고 있다

1. “abad”, “douleuein”, “diakonein”이란 낱말군은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관계는 봉사의 일종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 히브리어 “abad”란 낱말군은 넓게는 일한다라는 의미인데, 종교적으로는 여호와나 다른 어떤 신에 대한 봉사를 뜻하고 있다. 신에 대한 복종이 늘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낱말들은 근본적으로는 복종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봉사에 대한 표현인 것이다(왕상 12:4-7 참고) 70인역이나 신약에서는 자주 “Douleuein”이 인간 일생의 이상을 마음으로 부너 하나님께 드려진 과업으로 표현하고 있다. (“Latreuein”과 “leitourgein”은 일반적으로 “douleuein”안에서의 하나의 행위나 특별한 기능에 대해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쁘게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며 서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도의 자유는 봉사의 의무로 부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벧전 2:13-16참조)

2. “Diakonein”은 “douleuein”과는 다르다.

“Douleuein”은 주인에 대한 복종적인 봉사(보통의)라는 뜻으로서의 일을 말하는 반면에 “Diakonein”은 봉사를 받는 그 사람을 가르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눅 12:37은 빛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주인인 고로 그의 종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봉사를 하는 한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주님 역시 성도들이 “봉사자”가 되어야 하며 서로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마 20:25-28, 엠 5:21과 벧전 5:5 참조) 주님 자신은 원래 뛰어난 봉사자 이었으며 특히 그가 희생제물로써 그의 생명을 드렸을 때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는 우리 모두를 위해 속죄의 과업을 성취하신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이신 것이다. (거기서는 종이란 히브리어의 “abad”란 어근에서 나온 “ebed”이다. 70인역에는 “pais”로 나와있다)

3. 광범한 용법으로써의 집사라는 말에 나타난 다양성에 대한 개념들을

다음에서 볼 수 있다. 그리스도는 할례의 수종가 (헬라원어로 집사)이시다. (롬 15:8). 사도들은 봉사와 직무를 맡은 자라고 하였다(행 1:17, 25).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그로 인해 믿게 된 사역자(고전 3:5, 엠 3:7)라 하였으며, 다른 전도자들도 “집사”라 불리워졌다. (엡 6:6-21, 골 1:1, 4:7). 천사들 또한 “집사”이다(히 1:14).

이들 볼 때 이미 성경에서 집사란 말은 이중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집사는 직분을 맡은 자나, 봉사를 하는자나, 돕는 역할들을 하는 자를 가르킨다. 헬라 과부들을 위한 매일의 원조를 위해 뽑혀 임명을 받은 일꾼사람이 (행 6:1-7) 후에는 집사라 불리워진 새로운 직책을 맡기 위한 첫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 이전의 일반적인 용법에서와 같이 “diakonia(집사직)”은 눅 10:40과 같이 가장 한정된 의미에 있어서는 살림살이를 하거나 식량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Kittel에 보면) 시험받으신 후에 예수님께 대한 천사들의 봉사가 같은 말로 나타날 때(그 경우에는 동사이지만) 그 같은 기본적인 의미가 될 것 같다. 그 말은 어떤 참 사랑으로써의 봉사를 이행함에도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그 말을 자신들의 말씀의 사역과 일꾼집사의 살림살이에 같이 사용한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일꾼 사람은 육적 양식을 공급하며 사도들은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다.

1. 집사의 역할과 봉사의 범위

다음의 고찰들은 더 넓은 범위에 대한 논증이다.

1.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넓은 의미에서는 성도와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집사이므로 집사란 이름 그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집사라 불리워지는 사람이 봉사의 한 모범이 된다거나 전형적 인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2. 그 직분은(De Jong, p.155참조).

① 신적으로 임명된 것이며, ② 영속적인 직책이며, ③ 잘 제정된 것이

며, ④ 봉사적인 것이며, ⑤ 영적인 성장과 회중의 덕을 세움에 있어 열매가 풍성하다. 이 모든 것은 집사직에다 성경적인 유추가 허락되는 한 더 넓은 범위의 유용성에 대한 잠재력을 주고 있다.

3. 장로는 “가르칠 능력”이 있어야 한다(딤후 3:3)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집사와 장로에게는 같은 영적 자격이 요구되어진다. 이 점에 대한 헬드릭슨의 주석은 강조적이며, 우수한 것이다. 그러므로 집사는 “살림살이” 이상의 일에 합당한 자로 결론을 내릴 것 같다(행 6:2). 이는 행 6:8,9에 나타나는 바대로 스테반은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등에서 온 반대자들이 변론함에 있어 이기지 못했으며, 기사와 포적을 행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비슷하게 일곱사람 중의 한사람인 빌립도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하여 이적들을 행하였다(8:5). 정말 그는 말씀을 전하러간 사마리아에서 그로인한 개종자들에게 세례를 베풀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 성도 중 누가 그와 함께 거기에서 세례를 베풀었는가?

아직 임명을 받은 장로가 없었던 것 같으므로 집사들이 사도들 다음으로 첫 직분을 맡은 자들이라는 데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 뒤에 가면(11:30) 장로에 관한 언급이 되어 있다. 이때에는 사도들이 장로의 기능을 감당했을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일곱사람의 광범하고도 높혀진 기능이 동시에 장로와 집사의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을 가르킨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에서 우리가 본대로 빌립은 말씀을 선포하며(εκηροῦσεν)세례도 베풀 것 같다. 만일 그 일곱사람이 장로와 집사의 기능을 함께 감당한다고 하는 이 후자의 견해가 사실이라면 집사직이 초대 교회에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처음이며 최고의 권위와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써 그 권위를 높히는 것이 된다고 함은 이치에 합당할 것 같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집사와 장로를 돕는 자로 기본적으로 생각함에 있어 방설이게 한다. 기능을 분할하는 그 자체가 나누어진 기능 중 하나가 다른 기능에 대한 종속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 일곱사람은 살림살이 이상의 일을 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일이며, 세례를 베풀는 일이며, 식량구제를 받는 자들에 대한 분배에 있어 공평성을 감독하는 일

등 모두 영적이며 권위적인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장로에게 요구하는 같은 수준인 것 같다.

4. 이때 제사장의 큰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한 것은(6:7)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비를 행하는 그들의 의무 수행에 있어 그들이 나타낸 감명을 가르키는 것 같다. 어떤 이들에 의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공식적인 자선의 행위만을 하였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마리아인이 그들의 전통적인 원수를 향하여 가던 길을 멈추고 도와주기 전에 그 다친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야기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필요한 이에 대한 더 특별한 의무를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유대 백과 사전에 자선, 기도, 금식은 회당에서 교회에 물려준 세 가지 기본적인 고행의 구성 요소가 된다고 한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일곱사람이 행한 일이 그 제사장들에게 감동을 주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5.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라 하여 집사직의 활동을 저하시키기는 어렵다. 바울과 그의 전도 여행들에 동행한 자들이 마케도니아로부터 얻은 것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갔다. 확실히 이것은 집사직의 활동이지 살림살이는 아니다. 이런 봉사에 있어 그 집사들이 함께하였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마케도니아 교회중 하나인) 보낸 바울의 편지가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1:1)라고 인사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한 것이다. 다른 어떤 편지에도 집사들에게 인사말을 한 것은 없으며 다른 어떤 교리들과도 달리 복음안에서의 그들의 참여를 특별히 명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이다(1:3-7, 4:10-18)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의 집사들이 언급되고 문안된 것은 바울이 그 교회를 칭찬한 것—즉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와(고후 8:1-4참고) 봉사하는 바울을 도운 것(빌 1:3-7; 4:10-18) 특별한 연루 때문인 것 같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집사에 대한 또 다른 추천은 롬 16:1에 있는 뵈뵈에 대한 것인 것 같다. 거기에서 여집사라 할 수가 있다면 그 여자는 Arndt와 Gingrich가 그의

사전에서 "rotectress(여 원조가), patroness(여 후원가), helper(조력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prostatis로서 철회되고 있다. 디모테전서에 있는 집사에 대한 언급들은 인사나 추천의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대한 필수 조건을 주고 있다. 의무에 대한 말은 없고 자격에 대해 나와 있으며 다른 곳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거의 장로들에게 요구되는 것과 일치되는 것이다.

6. 집사가 단지 자비의 사역자만은 아니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자비의 사역자인 것도 확실하며 무엇보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그 이상의 것이다) 일곱사람을 임명하였을 때 교인 모두가 서로의 생계와 필요를 위하여 소유 모두를 나누지 아니하였던가? 일곱 사람은 살림살이를 맡았으나 그것은 그 일이 전혀 되어지지 아니 해서가 아니고 불공평하게 되어졌기 때문이었다. 즉 헬라과부들이 등한시 되어졌으므로 새로 임명을 받은 직분자들은 위에 말한 불공평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직함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지니는 것이 적절하였던 것이다. 분명히 살림살이라 할 때는 그와 같은 자격을 요하지는 않는다. "이런 직분자들의 기능은 행정적이고 재정적이어야 할 것이다"라고 Deon morris는 "Deacon"의 항목에서 말하고 있다. (*Baker's Dictionary of Theology*, Baker Press, 1960). 정통 장로교회의 다른 사람들 역시 이렇게 생각한다(예를 들면 Albert G. Edwards 목사 같은 분) *Amended Version of the Form of Government of the O.P.C.*(정통장로교 선교회). p.11에서 말하기를 "집사회는 교회내에서 자비의 일을 감독할 것이며, 필요한 구제를 위한 자금을 모우며 지출하기도 할 것이다. 교회에 대한 봉사의 다른 형태들이 집사들에게 맡겨져야 할 것 같다"

7. 오늘날 집사들의 활동범위를 넓히는 데 있어 달리 주장하는 점이 있다.

a. 롬 16:1에서 비치는 집사(diakonos)라 불리워지고 있다. 칼빈은 그녀를 공적인 의미로 집사라고 생각하였다 Westminster신학교 학장인 Edmund Clowney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른 이들

은 이에 반대한다. (예를 들면 *The Presbyterian Guardian*의 편집자 John Mitchell 같은 이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한다. *Covenant College* Henry Krabbendam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바울은 정해진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일반적인 그녀의 봉사를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 경건한 부인들은 그들의 행동이나 사랑의 봉사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딤후 5:3-10) 사도들 이후의 교회는 여집사의 직분을 소개한 일이 있다. 성경이 사도 후 교회의 그 습관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교회는 만일 효과적이라면 그 경우의 성격상 남자가 못하다고 생각되는 데는 경건한 부인들의 사랑의 봉사를 유용 함이 좋을 것이다. ("등사된 개요 집사직 *The Office of Deacon*" p.1.) Leonard Coppes는 그가 곧 출판하기를 원하는 집사직에 대한 책을 논함에 있어서 우리교회는 그런 필요성이 절실하다. 장로들과 같이 집사들도 권위의 역할을 지니므로 여자들은 집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여자장로에 반대하는 같은 주장이 여기서도 적용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Edmund Clowney는 딤후 3:11이 만일 집사의 부인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주 그렇게 해석이 되듯이) 집사의 부인은 집사의 가족과 부인에 대한 문맥 안에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12절 후에 나와야 할 것이란 강한 주장을 하고 있다. 거기에서(12절) 집사부인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자격들을 지적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그 논리와 문맥은 11절의 집사들의 부인에 대한 말이 아니고 여집사에 대한 말이라는 논증이다. 예를 들면 여기 어디에 장로부인의 자격에 대한 말이 있는가? 8절과 11절은 거의 대략이 되는데 8절은 남자집사에 대한 것이요, 11절은 아마도 여집사에 대한 말일 것이다.

b. 회당에서의 어떤 직책은 집사직의 활동 범위에 대한 암시가 된다. 1차 전도 여행시 바울과 바나바의 통역자였던 마가는 그들의 "huperetes (수종자)"라 불리워지고 있다. (행 13:5) 그런데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읽으신 두루마리를 도로받는 그일을 하는 사람이 눅 4:20에 이 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여기서 이 말은 "attendant", 수행자 (NAS,

NEB역 둘다)라고 한 것이나 행 13:5에서 “assistant, 조수”(NEB역) “helper, 조력자”(NAS)라고 한 것은 잘못된 번역인 것 같다. 눅 1:2에서 누가는 같은 말 “huperetes(말씀의 일꾼된 자들)”을 누가복음에 기록한 사건들에 대해 그에게 알려준 사람들은 존경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마가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방인들에게로 갔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그런 huperetes(말씀의 일꾼)이 아니었던가? 마가복음 14:51에 보면 그는 그라스도의 수난을 목격하였던 자인 것 같다. Kittel사전에 의하면 Xenophon의 책안에서 “huperetes”는 흔히 부관을 뜻하며 친한 몸종이란 뜻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였으며, 또한 Kittel은 (집사)의 뜻이 diakonos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문제에 관하여 바울을 동반했던 내과의사인 누가는 의사나 집사로서 봉사한 것으로 묘사되어 지지는 않고 있으나 그 직분을 가졌든지 않았든지 간에 그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를 모으는 일을 도우는 일로써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로서의 두 기능을 모두 이행하였던 것 같다. 그는 감옥에 조차도 바울과 동행하였었다. (딤후 4:11,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니라”)

우리 집사직의 정통장로교 구제부는(OPC Committee of Diaconal ministries) 해외로 기금을 보내지만 그와 같은 집사직 사역자들을 보내지는 않고 있다. 안수를 받은 목사와 부인들이 의사, 간호원, 기술자들과 함께 해외 선교부(Foreign Missions) 아래에서 이 기금과 물질들을 관리하고 있다. 자선사업과 아울러 해야 할 일들이 몹시 다양한 한국이나 에디오피아(그곳에서 병원을 오래동안 운영하였었다) 같은 데에 공식적인 역할들을 가진 집사들을 보내는 것은 좋지 않겠는가? 필자는 한국에 그런 조력자들을 크게 사모하는 사람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농업연구 과정과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여러 종류의 도움을 주는 비슷한 일들을 하는 교파적인 집사회가 기독교 개혁 교회에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교회 내에서 차선을 배우는 모든 일과 가르치는 것과 다스리는 기능이 아닌 모든 것을

집사에게 맡기는 것은 다른 교우들로부터 모든 교우에 의해 교회내의 일반적인 직책을 성취함에 있어서의 그들의 책임부분을 뺏는 것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모든 신자가 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므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집사들이 그일을 하기 위해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원리위에서 이사회가 집사들(장로들 역시)과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강력한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Dr. Clōwney에 따르면 이사회는 원리상 교회 내의 직분을 맡는 자들이 아니고 재산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처리할 일반 법으로 요구된 모임이며, 또 집사들이(혹 장로들이) 독점해서 그들의 일로 맡겨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모든 교우들이 어떻게든 그 문제에 참여해야 함으로 이사회가 재산 유지를 떠맡겨지지 않아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집사의 일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지 그 넓은 범위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집사가 다 짊어진다든 것이 아니다. 집사는 특정한 역할에 있어서 그 예를 보이며 지도력(leadership)을 보이는 것이지 모든 할 일을 집사가 꼭 다한다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앞장을 서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과 같이 교회의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참여 하도록 하며 격려하는 것이라 할 때 같은 원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하는 일 없는 이름만 있는 집사나 장로를 안수하는 것을 삼가해야 할 것이다.

II. 집사의 직분과 역할의 중요성

1. 역사적으로 집사직은 신약교회에서 과부들을 보살핌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생긴 불공평에 대한 곤란한 문제의 해결로서 그 직은 사도들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영속적 직책이 되었던 것 같으므로 집사들이 장로들의 아랫사람이라고 추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임명을 받은 장로가 없었을 것 같은 그 때에는 특별히 그랬을 것이다.

2. 신학적으로 그 직분은 배려(caritas)나 사랑의 관심(care)의 범위내에서 교회의 육적 책임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성도들의 공동체는 이 봉사자의 직을 대표자들(집사들)을 통하여 행하고 있다. (단지 대표자들을 통해서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자존심으로 행동하거나 사람 또는 환경에 대한 어떤 우월한 지배력을 성취하는 그런것이 아니고 부족한 교우들의 필요가 교우 전체의 필요이며 몸전체의 고통이라는 것을 모든 교우들이 깨닫는 공동체인 것이다.

“그러나 생가지 되어져야 할 중요한 점은 집사직으로서의 공동체는 분명히 작은자 중 가장 작은자 (“elachistoi”, 마 25:40,45)를 하나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다. 즉 미천한 사람이나 인간측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나 적어도 일시적으로가 아니면 아마도 영원히 쓸모가 없거나 대수롭지 않는 사람이나 또 성가시게 굴거나 파괴적이기 조차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받아들이는 그런것이다. 최후의 심판 비유의 의미 깊은 취지에 따르면 집사직으로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로 인정 되었다. 칼발트는 계속해서 공동체적으로나 공동체속에서 이행되어질 필요한 참아 웃됨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칼 발트는 자유주의 신학자이나 이 점에 대한 그의 말은 인용할 만한 것이다) “만일...그 증거가(witness) 이런 초보적인 의미에서의 봉사가 아니라면 화가(woe)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아무리 험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믿는 공동체는 어쩔 수 없이 원편 열소들 무리 가운데에 섬이 될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다른편에 있어 아무리 그 노력이 불타는 듯 할지라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가파른 비탈길에 서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Church Dogmatics, iv/3, p.891.

3. 은사적으로 또한 집사직은 중요한 것이다. 고전 12:8이하에 보면 바울은 가치의 순서를 따라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 같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돕는 것”이 다스리는 것과 방언에 앞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헬라어는 “antilempseis”인데, 집사직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롬 12:6이하에 보면 봉사(diakonia)는 예언 바로 뒤

두번째에 있는데, 거기에는 사도의 은사에 대한 말은 없다. 셈 4장에서와 은사들의 역할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인데 특히, 4장 12절을 주목해 보면 온전케 하며 덕을 세우는 면들과 마찬가지로 봉사의 일을 말하고 있다. (ergon diakonias) 집사직이 직접 언급된 것은 아니나 은사의 봉사적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4. 영적으로 이 직분은 결정적이며 강한 것이다. 이는 흔히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고 있다. John Murray는 롬 12:6이하에 대한 그의 우수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직은 물질적이며 육적 유익에 관련된 것이므로 낮게 평가되기 쉽고 영적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기 쉽다. 그래서 이 직분은 등한시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달리 나쁜 것은 이런 이유로 집사가 더 적합한 봉사를 제공하는 것 같은 다른 기능들을 자신에게 잘못돌리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등한시하거나 잘못 돌리는 것 둘다 피해야 할 것이고, 집사로 하여금 그 직분이 지니는 직무에 자신을 헌신해야 할 것이다. 합당한 의미로 집사직분의 해야할 일은 영적으로 강한 것이며, 이 직분을 과소평가 함으로써 일어나는 악은 교회의 증거에 있어서 큰 손해를 끼쳐 왔다.”(p.124 이하)

우리 정통장로교에서는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도 집사직에 대해 크게 소홀히 여겨왔다. 개교회가 자기 구역내에서 신도들에게 집사직의 일로 무엇을 주고 있는지 필자는 잘 모르겠으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선교사들을 유지하기 위해 보내지는 양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다. 나는 그 비용의 비율에 대한 보고를 진지하게 다른 사람이나 그에 대한 것을 읽어 본적이 거의 없다. 이 집사직에 대한 과소평가 때문에 교회의 전도에 크게 해를 끼쳤다고 지적한 John Murray교수의 말이 옳다는 것을 필자는 크게 동감한다. 그리고 강한 증거의 봉사를 위해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가르치는 자들(필자 또한 그런 사람 중 하나이다)을 보내기 위한 자금만 급하게 구해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찾아야 할 더 나은 방법과 보다 나은 비용의 비율이 있음이 확실하다.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르시기를 그들이 그의 말로 믿지 못 하였으면 그의 하는 일들을 보고 믿으라고 하셨다. 우리 또한 진리와 사랑을 나타냄에 있어서 우리의 말과 아울러 우리의 행위들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도 서

- De Jong, Peter Y. *The Ministry of Mercy*. Baker Press, 1952
- Huls, Albert. *The Christian Religion as Service*. Th. M. thesis at Westminster Seminary, 1959
- eds. McCord and Parker. *Service in Christ*. Wm. B. Eerdmans, 1966
- Schweitzer, Edvard. *Church Order in the New Testament*. Naperville: Allenson, 1961 *Amended Version of the Form of Government of the O. P. C.*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Guardian
- March, 72 On the change of name of Committee on General Benevolences
- Aug/Sep '72 same subject
- Aug/Sep '72 Albert Edwards, "To Whom Do We Show Mercy?"
- June/July '73 "Diaconal Ministries"
- Oct '73 "Was Phoebe a Deacon?"
- Jan '74 Rollin Keller, p.16
- June/July '74 Lawrence Eyres on the Elder (concerning deacons, too)
- VISITO, POTO, CIBO, REDIMO, TEGO, COLLIGO, CONDO, CONSULE, CASTIGA, SOLARE, REMITTE, FER, ORA
- "아픈자를 방문하고 목마른자에게 물을 주며, 배고픈이에게 먹이며, 죄인을 보살피고, 벗은자를 입히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죽은이를 묻어 주라"
- "당황하는 자를 충고하며, 죄인을 바로잡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며 해치는 자를 용서하고, 성가신 이를 참아주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이것은 Alexander of Hales, Albertus Magnus, Bonaventura Aquinas와 Aquinas에 의해 인용된 암송 구절인데 두번째 줄의 "consule"을 무지한자를 가르치며'와 '당황하는 자를 충고하며'로 나누어 두줄 다 일곱부분으로 하였다).
- G. Barrois의 *Service in Christ*에서 "On Medieval Charities"를 참고.

교수직 (Doctorum Munus)에 대한 칼빈의 견해

박 종 칠

(고신대학 강사)

- I. 문제점들
- II. 敎會內에 가르치는 職分
- III. 칼빈의 교사직 理解를 위한 자료들
- IV. 칼빈의 교사직에 대한 스트라스버그에서의 영향 (1538-1541)
- V.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교사직에 대한 견해
- VI. 교사직과 제네바 학원
- VII. 제네바 敎회의 교수들
- VIII. 敎회안의 교수직에 대한 칼빈의 신학적 기초

I. 문제점들

시대가 細分化 되어 감에 따라 여러면에서 전문적 교사들이 생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전문분야의 교사들이 敎會 또는 敎會에서 어떠한 위치로 어떻게 기능을 발휘해서 공공 봉사직을 더욱 생산적으로 이룰 것인가를 재평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敎會內에서 가르치는 職分이 어떠한 위치에서 또한 어떠한 기능으로 주님의 몸된 敎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할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 基督信者에게는 무엇보다 時代潮流에 따라 가르치는 職分이 어떤 위치에 서야 할까 보다는, 계시된 말씀에서